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9시 / 11시

교회소식

11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교회를 위한 기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찬 210)

하나님의 음성을

주가 일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3:12-22

곧 오소서 임마누엘

“풍량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내가 지고(찬 34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1월의 공동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일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중보기도팀**이 오늘 오후 1시에 이전 찬양대 연습실(지하)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미리 신청 하신분들은 로비에서 김밥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정주애)
5. 삶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 중고등부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탄절 찬양**을 준비합니다. 시간은 12시 30분 - 1시 30분 입니다. 또한 오늘 찬양연습을 마친 후 함께 **볼링장**에 갑니다.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양명철 목사 가정의 셋째 아이가(양하울) 태어났습니다. 축하해주시 바랍니다.
8.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월-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은 교회력이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줄리어서 캘린더의 새해는 1월부터 시작하고, 미국의 학기는 9월부터 시작한다면, 교회의 일 년은 대림절로 부터 시작합니다. 이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영어로 “Advent”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여러 가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待臨節)”로 사용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강림’보다는 ‘임재’란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강’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대충’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에 “대림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풀어보면 “주님의 임재(口)를 기다리는(待) 절기(節)”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이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하기에 흔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만 생각하지만,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초림)은 물론이고 오실 예수님(재림)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에는 색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상징화 하기도 합니다. 붉은 색이 성령강림절을 상징한다면, 흰색은 성탄절과 부활절의 색상으로 성결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대림절의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그 의미는 왕으로 오시는 분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개혁교회들은 많은 부분 교회의 전통들을 놓쳤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었고, 개혁교회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절기는 물론이고, 교회의 사명, 거룩한 헌신, 사랑의 섬김은 계승할 뿐아니라 더 발전시켜 지켜야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한울림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울림교회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예배당만 새롭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예배당도 그 빛을 발합니다. 사역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다면 시스템과 예배당이 아무리 새롭게 되어도 그 공동체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